

### 임산부의 체중증가와 신생아 체중의 결정요인 분석

최봉순, \*신정자<sup>1</sup>, 정효지<sup>2</sup>, 윤성도<sup>3</sup>. 대구 효성가톨릭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대구과학대학 간호학과<sup>1</sup>,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심혈관 질환 연구소<sup>2</sup>,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sup>3</sup>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임산부의 적절한 영양관리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행한 연구 중 일부로, 우리 나라 임산부와 신생아의 특성을 파악하고 임산부의 체중증가와 임신결과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1997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대구의 대학부속 D 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795명중에서 산전진찰을 해당 병원에서 받은 506명의 산모들과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정보는 병원의 임상기록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 임산부들의 평균 연령은 29세였고 초산부가 53%였다. 대상 임산부들의 임신전 평균 체질량지수는  $20.7(\pm 2.6)$ 이었고 26이상인 대상자는 4.5%였다. 분만전 혈색소가 12g/dl이하인 대상자가 78.9%였으며, 임신중 평균체중증가량은 15.5kg이었다. 임신중 체중증가는 산모의 연령, 임신전 체중, 임신전 체질량지수, 분만수, 교육수준등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임산부의 신장, 분만전 혈압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p < 0.05$ ). 임산부의 병력, 직업유무, 합병증등은 임신중의 체중증가와 관련성이 없었다.

신생아의 평균 체중은  $3236.7(\pm 501.70)$ g 으로 남아의 체중이 여아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 $p < 0.05$ ) 산모의 체중증가는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 신생아의 체중은 산모의 신장, 임신전 체중과 체질량지수, 임신중 체중증가량, Apgar Score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분만전 혈색소 수준과 혈압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p < 0.05$ ). 산모의 연령, 임신수, 분만수, 병력, 합병증, 직업, 교육수준, 등은 신생아의 체중과 관련성이 없었다. 요약하면 임신전의 체형은 임신중의 체중증가양상과 임신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전과 후의 임산부의 체중관리가 중요한 건강관리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임산부의 체중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산부들의 식습관 및 식이섭취 양상을 포함하는 건강행태와 생화학적 검사를 통한 영양상태의 평가등이 다각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